


공동체 소식



연중 제4주일(설)

시작이시며 마침이신 주 하느님,
오늘 새해 첫날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봉헌하오니,
온갖 은총과 복을 가득히 베푸시어,
저희가 조상들을 기억하며 화목과 친교를 이루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오늘미사는 우리 민족 고유명절인 ‘설미사’ 로 봉헌합니다.

- ‘매일미사’ 123쪽 참조

■ 이번 주간의 축일

- 1/31(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 2/ 2(목) 주님 봉헌 축일

■ 이번 주간 평일미사, 신심미사 안내

- 평일미사: 1/31(화) 저녁 7:30, 2/2(목) 오전10:00,
- 예수성심: 2/3(금) 오전10:00,
- 성모신심 - 2/4(토) 오전10:00.

■ 주님 봉헌 축일(2.2) 초봉헌 안내

- 봉헌초 값: \$4.00/개
- 내용: 제대초와 가정초를 각각 봉헌해주시기 바랍니다.
- 초축복 예절: 다음주(2/5) 교중미사 중

■ 총구역회 모임(구역장 · 반장 모임)

- 일시 : 오늘 교중미사 후
- 장소 : 나자렛관(본당회관)

■ 반모임 안내

- 내용 : 반모임은 반장님의 주관 아래 모임 날짜와 회수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캔사스대교구 ‘Archbishop’ s Call to Share’ 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내용 :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나눔에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 참여방법 : 교구홈페이지 메뉴-RESPONDING (<https://www.calltoshare.org/>)

■ ‘Stone Chapel’ 바닥 카펫 교체 공사완료에 감사합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416	219	166	설노래

■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금 주	차민서 임마누엘	문호진 안토니오
	김정원 안젤라	고평원 프란치스코
차 주	차민서 임마누엘	문호진 안토니오
	문예나 요안나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최은미 아네스	김화년 요안나 김영은 안젤라
차 주	김주연 세실리아	김정원 베드로 김말자 세실리아

■ 애찬 봉사자

금 주	백문주, 최은미, 윤지선
차 주	정지현, 조지연, 정명숙

■ 헌금 봉사자

금 주	백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차 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1/22일	64명	398달러	980달러

강영진, 김진미, 이내익, 조지연,
차호섭, 한봉경, 이우석 (총 7세대)
※특별헌금: 400달러(건축헌금)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hin@daum.net

오늘의 전례

오늘은 조상들을 기억하며 차례를 지내고 웃어른께 세배를 드리고 덕담을 나누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임을 잊지 말고, 주님의 성실한 종으로서 늘 깨어 준비하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며 살아갑시다.

그림 묵상

예수의 봉헌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 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루카 2,23)

예수님의 봉헌은 하느님 백성을 위해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아기로 오신 탄생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신 마지막 봉헌입니다.

-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6,22-27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 산들이 솟기 전에, 땅이며 누리가 생기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시옵니다.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돋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

제 2 독 서 :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4,13-15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35-40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쉐 마

가난하고 겸손한 이들의 참행복 (연중 제4주일)



성경은 가난한 이들의 행복에 관하여 자주 언급합니다. 오늘 1독서에서 봉독한 스바니아 예언서는 “그분의 법규를 실천하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이들”에게 의로움과 겸손함을 찾으라고 권고합니다(스바 2,3). 여기서 겸손한 이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나빔”으로 가난한 이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나빔, 곧 가난한 이들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를 ‘겸손한’이라고 번역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이들은 하느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오직 그분께 의지하며 그분의 법규를 실천하는 이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도 표현되는 그들은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 입에서는 사기 치는 혀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스바 3,13).

오늘 복음에 나오는 ‘참행복 선언’은 이러한 가난한 이들의 특징을 더욱 상세히 묘사해 줍니다. 먼저,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이들입니다(마태 5,3). 우리말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번역하지만 그리스어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영이 가난한 이들”입니다.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적이지 못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스바니아 예언서가 이야기하는 겸손한 이들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이들은 타인의 아픔과 고통, 세상의 죄 앞에서 슬퍼합니다. 또한 온유하여 다른 이들의 짐을 대신 짊어집니다(마태 5,5; 12,28-30 참조). 언제나 의로움에 주리고 목말라하며, 자비로운 모습을 지닙니다. 마음이 깨끗하여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며(마태 15,15-20 참조) 분열이 아니라 평화를 이룩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때문에 박해를 기꺼이 참아 받습니다. 이렇게 보니 가난한 이들은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철저히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참행복 선언’은 이처럼 가난한 이들이 진정 행복

한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늘 나라를 차지한다는 것은 약속된 땅을 차지하는 것, 곧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느님의 자비를 입어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하느님을 영원히 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하늘 나라를 나중에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미 그들의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5,3). 하늘 나라의 행복은 나중에 가서야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누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의 시각에서 볼 때 슬퍼하고, 박해받아 고통 속에 사는 듯 보이지만 실은 그들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이들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늘 나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늘 나라를 온전히 차지하는 것은 종말에 가서이지만 가난한 이들은 이미 하늘 나라에 속한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상속받게 될 하늘 나라가 당신을 통해서 이미 가까이 와 있다고 선언하십니다(마태 4,17). 그러면서 이 나라를 차지하려면 회개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난한 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슬퍼하며, 온유하여 타인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의로움에 목말라하며,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며, 평화를 이루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생겨나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것이 참된 회개의 삶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가난한 이로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다시금 회개의 삶을 살아 하늘 나라를 상속받읍시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엄철호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교리산책

제사는 미신이 아닌가?

명절이 되면 신자들은 제사 때문에 갈등을 하곤 합니다. ‘제사는 미신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갈등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유교 문화권에 있는 나라에서 조상 제사는 매우 중요한 전통 중 하나입니다.

16세기 말 중국에서 선교한 마태오 리치 신부와 예수회원들은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인 유교 문화를 깊이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전하면서 조상 제사를 우상숭배가 아닌 ‘효’라는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유교가 강조하는 효의 정신은 생명을 주신 부모와 선조께 감사의 보답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현재 나를 있게 한 조상에 대한 감사이며, 이는 ‘죽은 이 섬기기를 산이 섬기듯이’(중용 19장)로 이어져 특히 제사를 통해 실천됩니다. 그러나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제사와 가톨릭의 제사 정신은 달라야 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 돌아가신 조상님이 와 계신다고 믿고 절하거나 영혼이 음식을 먹는다고 여기며 하는 행동, 아울러 지방과 위패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미신적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제사는 뿌리에 대한 감사이며 가족 공동체의 친교의 장으로 가족들이 모여 화합하고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제사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지만 미사에서는 돌아가신 분이 다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음식이 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사 봉헌이야말로 제사 중에 제사라는 점입니다. 조상 기일의 미사 봉헌은 효성스러운 행동이며,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제사는 바로 미사입니다. 미사는 십자가상 예수님의 제사를 재현하는 것이므로 미사에 참례하는 것은 예수그리스도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사의 근본정신은 선조에게 효를 실천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뿌리 의식을 깊이 인식하며, 선조의 유지를 따라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가족공동체의 화목과 유대를 이루게 하는 데 있다.”(「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제134조 1항)

- 김지영 사무엘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장



복음묵상

첫날

새해 첫날부터 예수님 만나러 간다!

올해는 새해 첫날부터 신나 보렵니다.

만나볼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불러라. (이사 55:6)



- 임의준 신부 “첫날” 中